

전남 폐지수거 노인 530명 '절반 독거노인'

전남지역에서 폐지수거로 활동하는 노인이 530명이고, 절반이 홀로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폐지수거 노인의 건강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개인별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폐지수거 활동을 하는 노인은 530명이었고, 이 중 94.3%인 500명의 노인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노인 500명 중 남성이 56%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75~79세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70~85세가 82%였다.

폐지수거 노인 중 51%는 홀로 사는

전남도 전수조사 토대로 복지서비스 강화

51% 혼자 살아...부부가구 39%·조손가정 1%

노인이었으며 부부가구는 39%, 조손가정은 1%로 파악됐다.

건강상태는 46%가 양호했으며 건강하지 못한 노인 중 25%가 등록장애인이었다. 만성질환 노인이 17%, 장애는 아니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12%였고, 1%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만성질환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은 보건소와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

484명이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6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돼 총 98%가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2%의 노인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서비스 수혜 노인 중 33%는 기초수급자로 저소득 노인이었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폐지수거 노인 중 10%의 노인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1%가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폐지수거 노인의 44%는 건강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를 힘들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처음으로 이뤄진 폐지수거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동구,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광주 동구는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생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동구의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9.2%, 광주 평균 37.5%를 웃도는 수준이다.

동구는 1인 가구 수요 급증에 따른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5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밖에도 동구는 이달부터 여성·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현관 보조 키 ▲창문 안전 잠금 장치 ▲현관 센서등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구, 건강택배 학습프로그램 모집 한다

광주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건강택배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택배 학습프로그램은 만 60세 이상 서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6개월 간 매달 건강·운동·영양 분야의 학습지·꾸러미를 각 가정으로 배송, 채택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서구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온라인 방식으로 미션·학습테스트를 진행한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학습 의지를 높인다.

남구, 건강증진 '비대면 운동 3종' 선보인다

광주 남구는 22일 "코로나19로 신체활동이 줄어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은 온라인 건강챌린지를 비롯해 1530 건강걷기, 마로 또 같이 등 3종류이다.

먼저 온라인 건강챌린지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건강 식이관리와 걷기운동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사전 검사를 통해 고혈압 등 2종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주민 30명이 참여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

북구, 수출기업 해외규격 인증비 지원

광주 북구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22일부터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규격 인증 취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수출기업 해외규격 인증비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코로나19 피해 전수조사 시 다수 기업의 요청에 따른 신규 시책으로 사업수행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맡는다. 신청대상은 분사 또는 공장이 북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중기부 고시 444종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기업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산구, 개별주택가격(안) 공개

광주 광산구는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접수'를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 광산구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안에 의견제출서를 접수 시켜야 한다. 서류는 광산구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의견 신청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준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1만7669호이며, 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이다. 임형택기자

광주지하철에 AI-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한다

조선대학교와 '문화예술 체험관 조성' 협약 체결



광주지하철이 'AI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와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지난 19일 동구 조선대학교 LINC+ 사업단 총장로산학협력거점센터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오는 4월 금남로4구역 지하 1층에 '문화예술 체험관'을 조성하고 일상 속에서 융복합 과학예술 체험을 즐기며 AI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 체험관에서는 디지털 커리큘쳐를 비롯한 인터랙티브 아트 활동, VR 미술체험 등 인공지능(AI) 기반

문화예술 콘텐츠 체험, 광주정신 제고를 위한 영상예술작품 상영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펼칠 예정이어서 어린이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보 사장은 "지역민들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AI를 생활속에서 만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AI 중심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 역시 "이번 체험관이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 사랑방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 행복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개최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지난 20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7년 8월 광주·전남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로 인증받은 이후 재인증을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서구 아동친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동, 보호자,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

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병행해 진행됐다.

서구는 토론회를 통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6개 영역에서 추진 중인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해 아동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정했다.

원탁토론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내 목소리를 전달해보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에 자주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광주시의회, 아동·청소년 부모 및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조례

광주시의회가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대물림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 채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님께서 제안한 슬로런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